

신이식환자에서 Mizoribine의 면역억제제로서의 효과

봉생병원 신장내과

오혜주 · 김지환 · 손영기 · 박용기 · 신용훈 · 전건웅 · 김중경

The Effect of Mizoribine on the Immunosuppression in Renal Transplantation

Hyae Ju Oh, Ji Hwan Kim, Young Ki Son, Yong Ki Park, Yong Hun Shin, Gun Ung Jeon, Joong Kyung Kim

BongSeng Hospital, Division of Nephrology

배 경 : 장기 이식 환자에서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은 이식 장기의 생존 및 환자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서 알려져 있고 calcineurin inhibitor는 신독성과 같은 중요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면역억제제를 병합하고 있다. 본 연구는 mizoribine (Brednin[®])이 이식신에 미치는 면역억제제로서의 효과 및 병합 투여하고 있는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8년부터 본원에서 시행한 신장 이식 환자에서 tacrolimus, steroid를 기본으로 처방받고 있으면서 병합치료로 mizoribine (brednin[®], MZR)과 mycophenolate mofetil (cellcept[®], MMF)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MZR이 처방된 27명과 MMF가 처방된 39명을 급성거부반응 및 부작용,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에 대해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평균 추적 기간은 MZR군은 40주, MMF군은 51주였고 MZR군에서 추적기간이 짧았다 ($p < 0.05$). 두 군의 연령, 성별, 공여자 연령,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HLA 적합도 비교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저 질환은 두 군 모두 만성사구체신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며, 다음으로 당뇨 순이었으나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기적인 이식신에 대한 추적관찰 기간동안 체중, 혈색소,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청 크레아티닌치, 총콜레스테롤, 혈청 요산 등 생화학적 지표들은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작용 발생 빈도는 MZR 군에서 15명 (55.6%), MMF군에서 21명 (53.8%) 발생하여 두 군 간에 발생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발생한 부작용의 예들은 이식 후 당뇨는 MZR군에서 11명 (48.1%), MMF군은 8명 (20.5%)으로 MZR군에서 이식 후 당뇨가 많이 발생하였고, 설사 및 상복부 통증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은 MZR군은 1명 (3.7%)이 발생한 반면 MMF군의 경우 11명 (28.2%)이 발생하여 소화기계 부작용은 MMF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p < 0.05$). 이로 인해 MMF에서 MZR으로 약물을 교체한 환자가 11명이었다 ($p < 0.05$). 급성 거부반응은 모두 12명에서 발생하였는데 MZR군은 3명 (11.1%)에서 급성 거부반응이 발생한 반면 MMF군의 경우 9명 (23.1%)이 급성 거부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두 군간에 급성거부반응의 발생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 기간동안 이식신 소실 및 환자가 사망한 예는 두 군 모두에서 없었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는 후향적인 방법으로 mizoribine의 신이식환자에서 면역억제제의 효과 및 부작용 발생 등을 mycophenolate mofetil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및 급성 거부반응의 발생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장기간 이식신을 보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면역억제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